

<EDA 스토리라인>: tp01,02 성격특성으로만 구성

1. 데이터에 대한 소개: 심리 데이터

1) 데이터의 구성: (여기에 분포 그래프 같이 넣어줘도 괜찮을 듯 그냥~)

- 성격 특성에 대한 질문 10가지
- 마키아벨리 성향을 믿는 질문 20가지 + 응답시간
- 응답자의 특징: 연령, 교육수준, 형제자매수 등등
- 실존하는 단어와 허구인 단어 뜻을 아는지 묻는 질문

2) 데이터 활용 방안

우리의 심리 데이터 장점은 '응답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특징'(종교, 유년기 거주지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리 관련 설문 응답에 대한 전체적인 분포나 점수자체도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특징들에 기반한 성격 및 심리 분석이 가능하다.

2. 주제 선정 과정

1) 배경

2030, mz세대 특성처럼 연령대를 특정 지어 성격이나 심리 상태를 규정하는 기사나 이야기들.

ex) 2030세대는 막연한 유행을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치밀하게 고민하고 똑똑하게 따져보고, 실행에 옮기는 세대'이자 '명확하고 분명한 답변을 추구하는 세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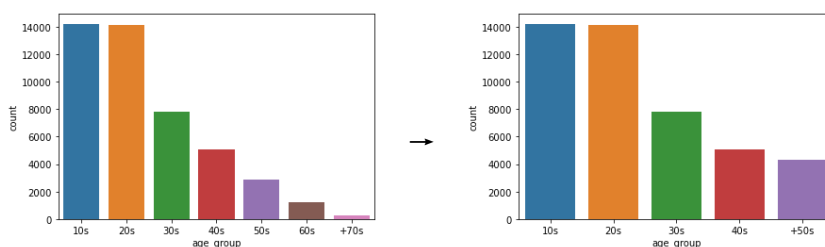
출처 : 인더스트리뉴스(<http://www.industrynew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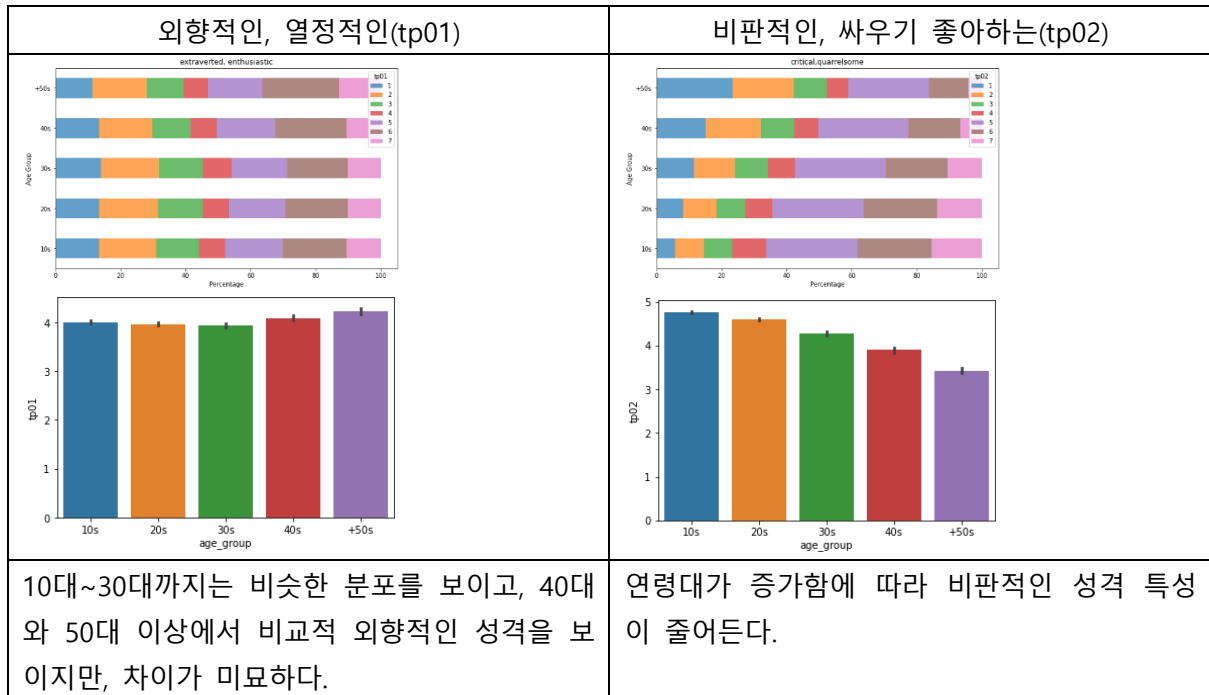
- 이거 크롤링해서 wordcloud???

➔ 2030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격 특성이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의 통념과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

➔ 연령대에 따라 성격특성이 다른지 확인 해보자!

*연령대 50대이상 하나로 묶음 W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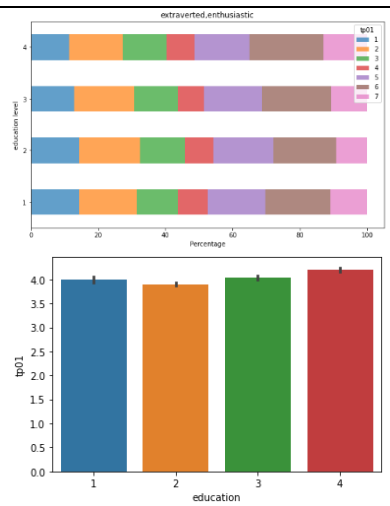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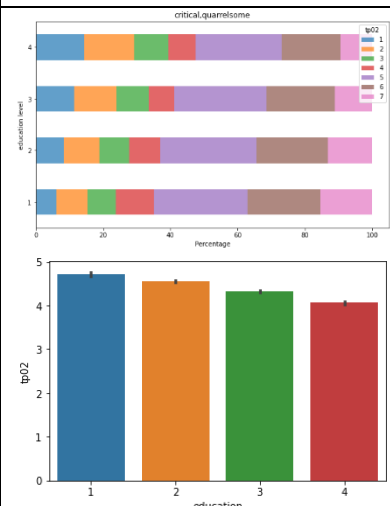
결론: 외향적인 성격특성은 연령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비판적인 성격은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확실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찾으려고 한 2030의 두드러지는 특성을 찾을 수는 없었다. 2030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격은 찾을 수가 없었지만,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몇몇 심리 및 성격특성을 찾을 수 있었다.

- ➔ 왜 어떤 성격 특성은 연령대라는 변수의 영향을 받고, 어떤 성격 특성은 연령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지?
- ➔ 연령대에 따라 성격특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의미는 해당 성격 특성이 나이가 들어가며 주위 여러 요소 때문에 환경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위의 성격특성이 환경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보다 작고 생물학적으로 각각에게 내재된 특성이라고 한다면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 ➔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설문조사에 여러 요인들 중에 어떤 것이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나왔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3.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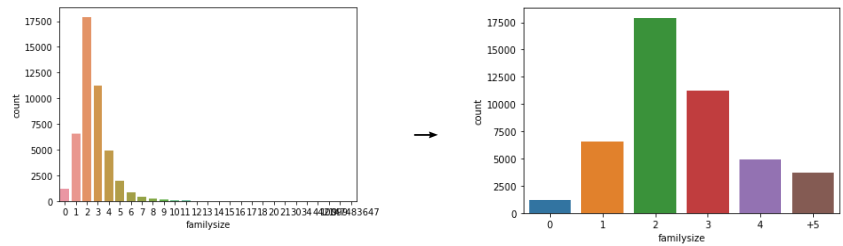
*전제: 요인별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1) 교육수준

외향적인, 열정적인(tp01)	비판적인, 싸우기 좋아하는(tp02)
 <p>The tp01 section contains two charts. The top chart is a stacked bar chart titled 'extraverted.enthusiastic' showing the percentage distribution of responses across four education levels (1, 2, 3, 4). The y-axis is 'education level' and the x-axis is 'Percentage'. The legend indicates seven categories (1-7) represented by different colors. The bottom chart is a bar chart showing the mean score for tp01 across the four education levels. The y-axis is 'tp01' and the x-axis is 'education'.</p>	 <p>The tp02 section contains two charts. The top chart is a stacked bar chart titled 'critical.quarrelsome' showing the percentage distribution of responses across four education levels (1, 2, 3, 4). The y-axis is 'education level' and the x-axis is 'Percentage'. The legend indicates seven categories (1-7) represented by different colors. The bottom chart is a bar chart showing the mean score for tp02 across the four education levels. The y-axis is 'tp02' and the x-axis is 'education'.</p>
교육수준에 따라 외향적인 성격특성은 큰 차이가 없다.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고졸미만->석박사) 비판적인 성향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 요소가 비판적인 성격 특성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2) 형제자매수

*5명 이상은 하나의 그룹으로 통일하였다! Why?



외향적인, 열정적인(tp01)	비판적인, 싸우기 좋아하는(tp02)
<p>The tp01 charts show that as the level of extroversion/enthusiasm increases, the distribution of family sizes shifts towards smaller families. The mean family size decreases from approximately 4.0 for level 0 to approximately 3.8 for level 5.</p>	<p>The tp02 charts show that as the level of criticism/combative behavior increases, the distribution of family sizes shifts towards smaller families. The mean family size decreases from approximately 4.0 for level 0 to approximately 3.8 for level 5.</p>
형제자매수는 외향적인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형제자매수가 증가함에 따라 싸우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줄어든다. 형제자매수 요소가 비판적인 성격 특성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교육수준보다는 영향이 미미해보인다.

3) 혼인 상태

외향적인, 열정적인(tp01)	비판적인, 싸우기 좋아하는(tp02)
<p>tp01</p>	<p>tp02</p>
<p>결혼을 해본 사람이 결혼을 안 해본 사람에 비해 약간 더 외향적이다.</p> <p>현재 결혼 상태에 있는 사람과 이혼한 사람은 차이가 없다.</p>	<p>결혼을 안 해본 사람이 결혼을 해본 사람에 비해 싸우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지닌다.</p> <p>또한, 현재 결혼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혼한 사람보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지닌다.</p>

4) 유년기 거주지역

외향적인, 열정적인(tp01)	비판적인, 싸우기 좋아하는(tp02)
<p>tp01</p>	<p>tp02</p>
<p>어렸을 때 시골에 산 사람들이 약간 덜 외향적이다.</p>	<p>유년기 거주지역은 싸우기 좋아하는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5) 모국어가 영어

외향적인, 열정적인(tp01)	비판적인, 싸우기 좋아하는(tp02)
<p>모국어는 외향적인 성격 특성에 영향이 없다.</p>	<p>모국어가 영어인 사람들은 영어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 덜 비판적이다. 이것은 모국어가 영어인지가 영향을 끼쳤다가보다 영어권의 문화와 아닌 곳들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인다.</p>

교육수준이라는 요소가 다음의 10가지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이게 지금까지 위에서 서술한거고(tp01, tp02에 대해서만)

4.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교육수준, 뭐, 뭐 등)

	연령	교육수준	형제자매수	혼인상태	유년기 거주지역	모국어 영어
tp01 외향적, 열정적	△	-	-	△	△	-
tp02 비판적, 싸우려드는	○	○	○	○	-	△

마키아벨리 심리유형도 그렇고 성격특성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도 있고 아닌 특성도 있다. 하지만 비교적 이런이런 특성들은 좀 더 환경적으로 변화하기 쉬워보인다.

5. 결론

마지막에 빅5 그 유전가능성이랑 비교???

빅 5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생물학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는 모두 사람들의 성격 형성에 작용한다. 베리웰마인드는 이 같은 자연적인 요소와 양육 모두 5가지의 성격 특성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도 나와 있는데, 연구는 각 성격 특성의 유전 가능성이 다음과 같다고 시사했다.

▲개방성 61%

▲외향성 53%

▲성실성 44%

▲우호성 41%

▲신경성 41%

우리의 연구랑 봤을 때 뭐 비슷해보이기도 하고!!

6. 한계점

설문조사 응답자에 한정된 이야기이긴하다. 또 우리나라 자료가 아니라서 그냥 재미로만 봐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차이가 있다 없다, 영향이 유의하냐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차이가 많이 보이면 영향을 어느정도 미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한계!